통합민주당 광주·전남 중진들 '잠 못이루는 밤'

"텃밭부터 물갈이" 압박에 가시 방석

염동연 불출마 선언도 부담으로 작용

전남, 지역구조정까지 '엎친데 덮친격'

통합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재선 및 중진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악전고투' 를 벌이고 있다. 호남 물갈이론의 압력 및 지역구 조정의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재선 이상은 모두 6명.

광주에서는 북을의 김태홍 의원과 서을의 정동채 의원 등 2명이며 전남에서는 여수 갑의 김성곤 의원, 영암·장흥의 유선호 의원, 장성·담양·곡성의 김효석 의원, 영광·장성의 이낙연 의원 등 4명이다.

우선 정동채 의원은 문화부 장관 시절 주도한 광주 문화중심도시 성공적 추진을 내세우며 4선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성인 오락 게임의 정책적 실패 책임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

여기에 3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정치의 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지역과의 소통도 원활한 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염동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3선 의원인 정 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전 의원 등이 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조만간 거물급 인사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선의 김태홍 의원은 광주고검장 출신의 임내현 후보와 북구의 터줏대감을 자처하는 김재균 전 북구청장과 최경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는 등 나름대로 성장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남지역 재선급 의원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당장 여수시 지역구의 통합으로 재선의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주승용 의원(여수 을)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무소속 신화'로 불릴 만큼 바닥 조직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김 의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재선의 유선호 의원은 당장 지역구와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8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2안이 국회 정개특위에 의해 채택될 경우, 영암·장흥의 지역구는 영암·강진·완도와 장흥·화순으로 나뉘어진다. 이 경우 이영호 의원과의 경쟁전이 불가피지만 강진과 완도의 인구가 영암보다 많다는 점이 부담이다.

장성·담양·곡성의 김효석 원내대표도 고민 모드에 빠져있다. 지역구가 장성·영광과 담양·곡성·구례로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절친한 후배인 이낙연 의원과의 경쟁을 피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담양·곡성·구례 및 분구되는 광주 광산으로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인사가 당의 위기국면에 기존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도 아닌 광주로 지역구를 옮긴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다.

전남지역 재선 의원 가운데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은 가장 여유로운 처지다. 지역구가 영광·장성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김효석 의원의 이동으로 치열한 경쟁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이순신 장군 전적지인 진도 '벽파진 전첩비'를 방문, '상유십이 미신불사'의 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맨 왼쪽에 목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난국 타개를"

영암서 '정치 휴가' 마치고 어제 상경

벽파진·울돌목 방문 구여권 분발 촉구

김대중 전 대통령이 17일 무안공항 방문을 끝으로 2박3일간의 공식 휴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 :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천한 신하가 죽지 않았다)를 또다시 거론하며 구여권 진영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휴가 사흘째인 이날,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차남인 김홍업 의원 지역구인 무안과 신안을 잇달아 방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김홍업의원과 4·9총선에서 목포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등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방문, 20여분간 활주로와 계류장 등을 둘러봤다.

김 전 대통령은 대합실에서 "이번에 와보니 서남권이 희망에 차 있는 걸 느꼈다"면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 서남권이 중국· 동남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첫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통합민주당 출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날인 16일에는 진도 벽파진과 해남 우수영 울돌목 등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친 명량대첩 전적지를 방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벽파진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소개하고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 미신불사'정신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 개척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번 호남행은 지난해 10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참석한 이후 4개월만으로, 신년 휴가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호남 민심 결집'을 겨냥한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휴가지인 영암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목포,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의 지역구인 무안·신안과 가까운 곳이라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해수부 폐지는 해양강국 포기"

孫대표, 주말 부산·여수 방문 '해수부 살리기'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주말인 16일 부산과 여수를 잇따라 방문,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공언하는 등 해수부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낮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해수부 폐지 반대"를 외치는 수백 명의 인파를 향해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흥정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수부를 지켜나가겠다"며 해수부 존치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또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비야당 대표가 관련 궐기대회까지 참석할 경우 협상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부산 남항부두에서 열리는 해양부 폐지 결사저지 부산시민 궐기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이어 여수시 오동도 입구에 있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방문, "해수부 폐지는 해양강국을 포기하는 것이며 4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통합민주당이 나서 해양수산부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영호남 지역민들이 바라는 대로 통합민주당이 나서서 해수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우리 국민이 10년 동안 고생해서 유치한 엑스포인 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엑스포를 만들자"고 말했다.

손 대표가 이처럼 해양부 문제에 집착하는 데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통해 해양 부문의 경우 종합행정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강한 소신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야관계의 첫 시험대인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여당에 계속 떼밀려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존의 온화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강한 야당 대표의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손 대표의 '버티기'가 역풍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 "鄭 소환은 야당 탄압"

정측 "출두여부 당 논의 따를 것"

통합민주당은 17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정 전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자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선 때 후보간 격렬한 공방의 와중에서 오간 발언을 놓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있을 수 없는 정치탄압으로,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정치탄압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라면 신당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던 이명박 당선인도 소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 줄을 서려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장관측 핵심인사도 "지난 87년 대선 이후 후보간 공방 과정에서 오간 발언을 놓고 대선 후 검찰이 낙선자를 소환한 전례가 없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한 뒤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당 차원의 논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일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펴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보복·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 전 장관을 비롯, 통합민주당 인사 20여 명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일부가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강대학 '국제실무인력양성사업' 장학생 모집

동강대학 '지역전략산업의 중국 및 아시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BL(활동중심학습)기반 국제실무인력 양성사업'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영어사용 아시아권을 향한 비즈니스 실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키워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유학의 특전을 부여하는 '동강대학 국제실무인력양성사업'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십시오.

■ **해당 학과**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10개 학과 총 808명

학과	전 공	관역	학과특성	입학상담전화
한중일 비즈니스 계열	(주간) 80명 중국비즈니스 ——— 중국 일본비즈니스 ——— 일본 만화애술비즈니스 ——— 일본 (야간) 40명 유통관리기획 ——— 일본 중국비즈니스 ——— 중국		- 13억 중국시장과 경제대국 일본을 무대로 21세기 비전 창출 - 중국·일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 중국 상해이 '화동사범대학' 비즈니스 중국어과 3학 년 편입 가능 - 일본 오사카 '오사카 국제대학' 경영정보학과 3학년 편입 가능 - 일본 IT관련 기업에의 현지 취업	011-9222-1282 062-520-2399
관광레저과	주간 5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세계를 무대로 관광레저 산업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싱가폴, 필리핀 등)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10-2199 062-520-2528
사회체육계열	레저스포츠 전공 (주간) 3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21세기 국·내외 스포츠 산업을 리드할 스포츠 지도자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24-9112 062-520-2389
호텔외식 관광과	주간 50명	일본	- 호텔·외식산업 분야의 국제감각을 지닌 유능한 호텔리어와 외식산업 전문가 양성 - 일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49-9636 062-520-2377
법률경찰 경호계열	주간 8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영어권 관련 법률 및 경찰 전문인력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어학연수, 문화체험 실시	011-9601-5757 062-520-2369
전산세무 회계과	주간 4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실무중심 교육에 기반한 전산세무회계전문가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20-2222 062-520-2376
노인복지과	주간 70명 야간 5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사회복지의 개별영역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인력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0-7128-9115 062-520-2383
토지정보 관리과	주간 5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21세기 기업체가 요구하는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29-7784 062-520-2379
사회복지 행정과	주간 90명 야간 50명	일본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 일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9729-0283 062-520-2371
유아교육과 (3년제)	주간 128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2006, 2007년도 광주·전남 병설유치원 임용고시 다수 합격 - 취업률 매년 100% - 학과 부설 유치원 운영 및 졸업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실시	011-603-1110 062-520-2381

■ **해외교류협정 대학**

영어권	필리핀 University of Perpetual Help System
일본	오사카국제대학
중국	상해사범대학 상해 화동사범대학 청도대학 청도과기대학 심양공업대학 심양대학

■ 오사카국제대학과 협약식

■ 청도과기대학 현지학기제

■ 청도과기대학 협약식

■ 일본현지체험 팀프로젝트

■ 중국어학연수 발대식

■ 필리핀 현지학기제

■ **해외교류활동 프로그램** : 2007년도 현지체험 팀 프로젝트,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현황

분야	국가명	기간		학생인원
현지체험팀프로젝트	필리핀	6/26 - 6/29	3박4일	23명
어학연수	필리핀	6/26 - 7/25	4주간	18명
현지학기제	필리핀	7/26 - 11/16	16주간	18명
어학연수	중국	7/7 - 8/6	4주간	12명
어학연수	중국	08/1/13 - 2/23	6주	17명
현지체험팀프로젝트	중국	7/10 - 7/13	3박4일	12명
현지학기제	중국	9/17 - 2008/1/6	16주	22명
현지체험팀프로젝트	일본	7/4 - 7/7	3박4일	23명
어학연수	일본	9/10 - 10/20	4주간	23명
현지학기제	일본	10/21 - 2008/2/3	16주	23명
해외인턴십	중국	9/3 - 12/22	16주	2명
해외인턴십	중국	08/1/13 - 2/23	6주	1명
소계	-	-	-	184명

동강대학 국제실무인력양성사업단